

축사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 유산인 대장경 조성 1천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인류문명의 결정체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으로만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장경의 조성 1천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인류와 문명을 향해 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갖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하다는, 최고라는 의미에만 도취해서는 안됩니다. 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최고라는 찬사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경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민족의 가슴에서 잃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현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대장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시간은 살육과 약탈이 횡행하는 전쟁 기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참상 속에서 대장경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곧 새벽이 오는 징조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조상들은 그 염원을 대장경에 한 자 한 자 새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장경이 담고 있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분쟁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남북의 불교도가 함께 묘향산 보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막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 또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장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문화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민족이 인류를 선도하는 세기입니다. 문화는 문명과 정신사의 정수입니다. 대장경은 바로 이런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말 그대로 팔만가지의 문화콘텐츠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문화는 물론 인류의 문화를 꽃피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장경이 가진 가치와 대장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올바르게 눈뜨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이하여 평화와 희망, 그리고 문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축전이 그 새 천년을 여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축전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두관 경남도지사님과 해인사 주지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며, 합천군과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불기2555년 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